

국가기록원 정보 공개 국방부 사진자료로 본 5·18



사진 아래 '철모에 수건마스크한 국영민자들'이라고 적혀 있고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놓았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망한 시민의 시신이 실린 차량이 도청 앞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전쟁보다 참혹한 80년 5월 광주 날짜·시간대별 생생하게 담겨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국방부의 5·18 관련 사진 자료들은 당시 신군부의 민중항쟁에 대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특히 공개된 사진 곳곳에서는 신군부의 천박한 역사 인식 수준 뿐 아니라 도청 진압 작전 과정의 긴박했던 순간들, 시민들의 투쟁 분위기도 날카롭게 파악할 수 있다.

◇1980년 5월 군항제에 뒷받침된 시민들 = 국가기록원의 5·18 관련 사진자료는 국방부가 생산하면서 비공개로 분류했던데다, 한 차례도 일반 시민들의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30년이 넘었지만 여태껏 비공개로 분류돼 있었다.

'증거물사진'이라는 책자 안에 첨부된 사진들의 경우 사진과 함께 구체적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는 점에서 날짜, 시간대별 상황을 알 수 있다.

1980년 5월 16일 오후 7시 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의 야간 횡행 시위 사진을 비롯해 18일 낮 계엄군에 맞서 금남로에서 투석전을 벌이다가 전일빌딩 뒤 등에서 계엄군에 붙잡혀 끌려가는 학생들, 부상자를 실어나르는 시민들, 19일 오후 금남로에서 벌어진 계엄군에 맞선 시민 항쟁 및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헬기를 동원한 전투 활동, 21일 새벽 2시 광주세무서 화재, 새벽 5시30분 광주방송국 화재와 오후 6시 광주역 버스 화재 사진 등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다. 또 계엄군에 맞서 무장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21일부터 드러나고 22일 농성 등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거나 목포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23일 기쁨이 바

다란 백운동 주유소 전경 등도 살펴볼 수 있다.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살해된 시민이 '시신 운반' 차량에 실려온 사진, 27일 체포된 시민들에게 손을 들게 한 뒤 총으로 때리는 장면, 도청 진압 작전 뒤 불합리한 여학생들에게 총을 머리 위에 올리고 무릎 꿇린 채 위협하고 있는 모습 등에서 신군부의 잔인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시민 눈·귀 막은 계엄군의 선무 활동 =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정훈활동일지(사태기간중)'는 계엄군의 선무 공작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일지에는 5월 16일 시위 전날 대생 난입 협박으로 전남보도검열반이 전교사 정훈부로 철수했다가 18일 전국 비상 계엄 선포로 도청으로 복귀한 뒤 본격적인 '선무 공작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다. 선무 공작이란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였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군에 협력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하는 선전 활동이다.

신군부는 특히 18일부터 4개 방송국(KBS·MBC·CBS·VOC)에 정훈장교를 배치하고 본격적 선무방송에 돌입한다. 20일에는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헬기를 동원한 방송도 진행했다. 시민들의 항거로 계엄군이 철수할 때 잠시 중단됐던 선무 공작은 정훈장교 7명과 연구관 1명이 참여한 선무공작실이 편성돼 KBS 비아 송신소에서 녹음 방송을 통해 계속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일지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정훈참모실에 KBS 임시방송국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6월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 뒤 심어계 총부리를 거는 계엄군에 포위돼 손을 들고 서 있는 시민. <국가기록원 소장>

30일까지 선무 공작 활동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신군부는 이 기간 라디오 방송 및 신문보도(310회), 전단 13종 350만매 살포, 공중 및 가두방송 36회 등의 실적도 적어놓았다.

◇고교생 격문, 체중 활동 정황 = 사진에 덧붙여진 설명에는 '폭도', '극렬분자', '과격 운동자' 등을 빼지 않고 적시해 신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훈활동일지에는 아예 '광주시 완전 무법지대(약탈, 살인)' 등으로 적어놓았다.

사진 속 시민 얼굴에 빨간색 펜으로 '과격 운동자', '극렬분자'로 표시해 놓은 등 항후

처벌을 염두에 둔 증거 확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참여를 독려하는 글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고등학생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격문은 '역사의 흐름은 젊은 고교생들의 적극적인 민주 운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라는 첫머리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 '타오르는 눈빛'이라는 짧은 고교생들이여! 철관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만이 학생의 본분은 아닙니다... 조국의 민주화는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양세열 hot@kwangju.co.kr

4년만에 광주인권상 수상한 미안마 88항쟁 주역 민꼬나임

“민주도시 광주의 큰 상 ‘영광’ 버마 국민 상당수 5·18 기억”

아웅산 수처 여사와 함께 미안마(버마)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민꼬나임(50·사진)씨가 4년만에 광주인권상을 수상했다.

민꼬나임씨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감옥에 수감돼 받지 못했던 2009년 광주인권운동상을 받았다.

민꼬나임씨는 수상소감에서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이처럼 큰 상을 받게돼 영광”이라며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의 필명인 민꼬나임은 ‘왕 혹은 독재자(Min)에게(Ko) 승리한다(Naing)’는 뜻으로, 본명은 파우유분이다.

그는 1988년 8월 결성된 전 버마학생연합의 위원장으로 학생운동가 출신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체포돼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을 악명높은 인세인 형무소 독방에서 보냈고, 2006년 9월 또 다시 구속됐다가 2007년 1월 석방됐다.

이후 버마군정이 연료비를 다섯배나 인상하자 다시 반정부 시위의 선봉에 섰다가 2007년 8월 다시 구속돼 지난해 1월 자유의 몸이 됐다. 이날 광주인권상 수상 후 민꼬나임씨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한국(광주)를 방문한 소감은.
▲생각보다 엄청 발전했다. 버마도 하루빨리 한국처럼 성장했으면 한다.

-5·18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물론이다. 나 뿐만이 아니라 버마 국민들 중 상당수가 5·18 민주항쟁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여기 온 것이다.

-요즘 광주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시끄럽다. 버마도 민중의 노래를 못부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정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그것도 광주에서 그런일이 있던 말인가.(잠시 웃음 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선 버마가 한국보다 훨씬 민주적인 듯 하다.

-이웅산 수처 여사가 대통령에 도전하고 싶다는 외신보도가 있던데.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면 나도 돕겠다. 그가 후보로 나온다면 내 표는 그의 것이다. 물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를 지지하라고 적극 운동하겠다.

-향후 목표는.
▲당연히 잘사는 민주국가 버마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오랜 수감생활 때문에) 건강이 좀 좋지 않다. 그게 문제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강시장 “5·18 역사왜곡 좌시 않고 책임 물을 것”

일베·중편 내용 지적

강은태 광주시장은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력에 대해 광주시장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열린 ‘을(乙)을 위한 민주당 광주선언’ 행사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익 인터넷이 트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종합편성채널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광주일보 16일자 1면>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간 베스트라

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등 백주대낮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광주시장으로서 5·18 역사 왜곡을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정부가 결정을 못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참석자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무관
CNC M/C	0명	- 나이: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커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식당 / 청소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종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 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 통
4) 건강진단서 1 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급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함(yoo01@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건물/상가 추가대출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전. 답. 나대지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부동산 취득자금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금남로
대한생명 ● 주지병원
구.한미쇼핑 ● 고려주치정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신문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금-26%로

순창전통장류제조사 자격취득 과정 (전통장류제조사 2급)

(제)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에서는 전통장류 제조 기술 및 기술에 대한 현대적 계승과 가치 제창을 위하여 아예와 같이 순창전통장류제조사2급 과정을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기관 지원기관

- 교육개요**
과정명 : 순창전통장류제조사 2급 양성과정
교육시간 : 40시간 / 6회(주1회)
대상 : 전통장류에 대한 배움과 열망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
정원 : 선착순 20명(장류업체종사자 우대)
신청기간 : 2013. 05. 21 17:00까지
교육비 : 30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1-0128-4930-711(예금주: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
(입금 시 교육자명의로 입금)
- 교육특징**
· 전통장류에 대한 현대적 과학과 전통제조 방식의 접목
· 공인 민간 자격 취득(2급)
· 자격 취득 시 향후 각종 지원사업 우선 지원(창업컨설팅, 품질관리 등)
- 교육일정 및 장소**

일정	장소	내용	비고
5월 22일	미생물관리센터	순치엔터이선 및 오리엔테이션 등	
5월 29일	전북대학교순창분원	장류와 미생물 등	
6월 05일	전북대학교순창분원	고추장제조실습 등	
6월 12일	전북대학교순창분원	메주제조실습 등	
6월 19일	전북대학교순창분원	된장/간장제조실습 등	
6월 26일	전북대학교순창분원	청국장제조실습 등	

※ 자세한 교육안내 및 신청은 미생물관리센터 홈페이지(www.scm.kr) / www.sunchang.go.kr 참조
※ 교육문의 :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 기업지원팀 ☎ 063)653-9594